

영광 천일염, TV조선 '부뚜막 소금'서 우수성 알린다

영광백수초교서 촬영...영광특산물 요리 시연

김선우 SW미디어그룹 대표, 고향 영광 홍보 지원

고품질 영광 천일염이 TV조선 '부뚜막 소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요리 시연과 함께 시청자를 찾아간다.

염장선생 굴비로 유명한 영광은 서해 칠산 바다와 세계 5대 갯벌을 기반으로 연 평균 3만 5000t(전국 10%)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주산지다.

26일 SW미디어그룹에 따르면 '부뚜막 소금'은 유명 셰프가 푸드트러커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방문한다.

지역특산물 식재료에 우수천일염으로 양념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천일염의 가치와 건강, 환경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남 영광군편 제작은 지난 25일 영광백수초등학교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특급셰프 알렌차가 영광특산물 굴비와 모시

앞으로 만든 채소쌈을 비롯해 영광천일염 절임 배추로 만든 김치보쌈 등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환상적인 즉석요리를 만들어 학생·교사·학부모들과 즐겁게 시식하며 천일염의 가치를 몸으로 체험하는 즐거운 모습을 담았다.

이날 제작 현장에는 영광 출신의 김선우 SW미디어그룹 총괄대표도 함께했다. 김선우 대표는 고향 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하는 출연진과 스태프를 응원했다.

김 대표는 "제 고향 영광은 굴비뿐 아니라 모든 음식의 최종 맛을 결정짓는 '간'을 좌우하는 '천일염'이 생산되는 곳으로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갯벌을 품고 있다"며 "부뚜막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쉽고 간단한 일이라도 정성을 쏟아 넣어야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그룹사 대표로서 앞으로



영광 출신의 김선우 SW미디어그룹 총괄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25일 TV조선 '부뚜막 소금' 촬영 현장인 영광백수초등학교를 방문해 제작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SW미디어 제공)

고향 영광을 알리는데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뚜막소금은 매주 일요일 낮 12시50분 TV조선에서 방영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멜론 700개 뿌듯한 마음으로 첫 수확했다"

서울 출신 광씨는 씨, 경영실습대농장

"멜론 700개를 뿌듯한 마음으로 첫 수확했다. 영암군 청년 경영실습대농장에 입주해 초기 자본투자 없이 시설농업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에 수확한 멜론으로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영암 청년농업인 광씨는 씨가, 22일 수경으로 재배한 멜론의 첫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그가 멜론을 수확한 장소는 경영실습대농장. 영암군이 청년농업인에게 시설농업 재배 경험을 제공해, 농업창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시설이다.

서울에서 낱고 자란 광 씨는, 대학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닥치자 고민 끝에 부모님의 고향에서 농업창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2021년부터 영암 시종면 삼촌의 딸가-멜론 재배를 돕던 광 씨는, 농사일에 본격 뛰어들기 위해 영암군의 경영실습대농장의 문을 두드렸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광씨 같은 청년농업인 2명을 선정해 이 농장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배 시기에 따라 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 등으로 영농 초기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있다.

이번에 수확된 광 씨의 멜론은, 노지에서 재배되는 토경 방식과는 달리, 스마트팜의 재배 시설인 '고설베드'에서 키워졌다. 이 시설은 양분과 수분의 정확한 양이 들어가도록 공급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관리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광 씨는 큰 초기투자비용 없이 영암군의 도움으로 최첨단시설에서 선진 농법을 시험하며 농업창업의 자신감을 얻은 것.

광 씨는 앞으로 2년 더 경영실습대농장에서 멜론을 재배할 계획이다. 그 뒤에는 시종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농업창업과 멜론 재배에 나선다고 한다.

광 씨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암에서 농사짓는 일을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영암에 귀농하는 청년농업인의 귀감이 되고 싶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는 농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창업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언능 한컷 찍어부러"...목포 원도심 못난이 조형물 눈길

김판삼 작가 작품 설치...관광객들에 볼거리 제공

목포시가 원도심 중심상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이색적인 조형물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원동 로데오광장 인근에 '첫사랑'이란 주제의 조각가 김판삼 작가 작품 '못난이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 설치하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 청정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직접 실행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높이 80cm, FRP 재질로 만들어진 '못난이

조형물'은 동풍한 모습에 찢어진 눈, 낮은 코에 곱슬머리 등 풍자와 해학을 담고 있다.

교복을 입은 남녀 한쌍의 모형에 '곧미남, 곧미녀'라는 부제를 붙여 이를 본 방문객들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시는 남녀 조형물 사이에 발모양이 받쳐주는 의자를 만들고 '여구여~목원동, 언능 한컷 찍어부러~' 문구를 넣어 방문객들이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꾸몄다.

주변 상인들은 "남녀 학생 모습의 귀여운 조형물은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한다"면서

"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연상돼 벌써부터 우리 동네 인기명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형물이 설치된 로데오광장은 원도심 목원동 내에서 가장 변화한 상가 밀집지역이자 가족·친구·연인들이 자주 찾는 중심거리다.

박현주 목원동장은 "원도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고심해 준비했다"면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로데오광장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못난이 조형물'을 설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목원동 로데오광장에 설치된 '못난이 조형물'.



재생 예비사업 주민거점공간 개

함평군, '도시재생 주민거점공간 개소식' 개최

문장시장(3일,8일장)축제와 상생하는 해보면 상권 활성화 도모

함평군이 지난 23일 해보면 꽃무릇시장에서 도시재생 주민거점공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윤영량 함평군의회의장,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협의회,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인 문장시장 축제와 함께 주민거점공간이 상인회의 사랑방이자 모두가 즐겁고 살

고 싶은 해보면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해보면 문장꽃무릇시장에서는 5일장인, 3일과 8일 문장 장이 열리는 날마다 축제를 진행해 지역주민이자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와 함께 소소한 공연을 이어나가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 온실가스를 없애고
- 미세먼지는 줄이고
- 기후변화까지 막는
-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